

#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randparent's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민 하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유 안 진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Ha Young Mi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An Jin Yoo*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In general, grandparents have been very influential resource persons on their grandchildren's gross development. Nevertheless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many empirical studies that focused on the specific competence of grandchildren and showed strong evidence in its regard.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social support on their grand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the light of grandchildren-grandparent relationship.

The subjects were 230 fif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ho were 123 boys and 107 girls. Among them, 94 children were related with grandfathers, 167 children with grandmothers 101 children with maternal grandfathers and 182 children with maternal grandmothers.

The questionnaire was used as a methodological instrument and th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mean, Pearson's correlation,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1) Children's affectional intimacy to grandpar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grandparent's social support. (2) Perceived grandparent's social support was affirmatively correlated with grandparent-mother relationship, that is, grandchildren-grandparent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mother. And 3) children who more perceived grandparent's social support than less perceived grandparent's social support were highly rated in social competence by teacher. In the result, children emotionally, evaluatively, informatively and instrumentally supported by paternal or maternal grandparents showed high social competence defined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n the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 1.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풍부한 육아 경험과 경륜을 갖춘 조부모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부모 다음가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정되어 왔다(유안진, 1986,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는 핵가족 구조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만을 강조했을 뿐, 아동양육의 보완과 대리자로서 아동의 발달에 직, 간접으로 관계하고 있는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 현실은 가족구조적인 면에서 핵가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확대가족의 세대워리가 강하게 적용됨으로써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손자녀-조부모의 상호작용 및 상호유대가 강하다(박의순, 조병은, 1990; 서동인, 1991; 유안진, 1995). 또한 노년층의 장수화 및 유아 출산률 감소로 젊은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 간의 세대 간 수직적 연계 가능성이 높아가고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미혼모 및 이혼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의 정서적 고립감 팽배등으로 아동양육에서 조부모의 도움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조부모가 핵가족이 보편적인 현 가족구조에서도 아동과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원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인 아동과 조부모 관계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학이나 노년학 분야에서 노년기의 적응측면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서동인, 1991; Jendrek, 1993; Whitbeck, Hoyt & Huck, 1993) 아동의 발달과 적응 측면에서(유안진, 1986, 1989, 1995; 백문화, 조병은, 1992)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이 부모 뿐 아니라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제 사회관계, 특히 조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음을(Bronfenbrenner, 1986)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긍정적 가족관계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변수(이경희, 1994; 이숙, 정미자, 1995; 정영숙, 1992; 최경순, 1993; 최용주, 1993; Cohn, 1990)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정된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환경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적 지지 가설과 연관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이 부모, 형제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 뿐 아니라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경험과 유관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심리적 애착으로부터 형성되는 아동의 온정, 신뢰, 안정감이 사회적 적응의 토대가 됨(유안진, 1995; Shaffer, 1994) 고려해 볼 때, 상호작용자와의 심리적 친밀감은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예측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발달하는 심리, 정서적 친밀감을 주요관계 특성으로 하는 손자녀-조부모 관계는(유안진, 1989; Barranti, 1985) 아동

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며 대리 양육자로서, 자아 옹호자로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친밀감 발달과 관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손자녀-조부모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는 조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의해 중재되므로(Whitbeck et al, 1993), 심리적 친밀감의 발달과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역시 조부모-어머니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1)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과의 관계, 2)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어머니 관계와의 관련성, 및 3)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어머니의 관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조부모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세대간 관계에서 아동의 발달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과 조부모의 관계

‘손자를 귀여워 하면 할애비 수염을 당긴다.’ ‘손자 귀여워 하면 할애비 상투 잡는다.’ ‘빨리 손자 보고 싶어 어린 아들 장가 보낸다.’ 라는 속언처럼 혈

연 중심의 가계 연속화를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조부모란 손자녀의 대리 양육자로서, 자아 옹호자로서, 지지자로서 그리고 심리 치료사로서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애정을 손자녀에게 제공해 왔다(유안진, 1989, 1995). 아동 양육의 사회적 의무나 부담이 강요되지 않는 조부모는 손자녀의 주변에서 조용한 구원자, 제 2의 방어선, 안전한 등우리(Jendreck, 1993)로 존재하면서, 부모나 형제 또는 주변환경에서 느끼는 아동의 긴장을 해결해주고 아동에게 정서적 복지감이나 만족감을 경험시킨다(유안진, 1986; Kornhaber & Woodward, 1981). 뿐만 아니라 관용과 온정(Barranti, 1985), 물질적 도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상냥함등을 제공(서동인, 1991; Kivett, 1985)함으로써 조부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애착을 발달시킨다(유안진, 1989; Barranti, 1985; Kornhaber & Woodward, 1981).

조부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은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와 관계없이 발달된다(박의순, 조병은, 1990; 서동인, 1991). 심리적 친밀감이 동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백문화, 조병은, 1992; 장희경, 조병은, 1995)도 있으나 자아감과 같은 손자녀의 발달특성은 조부모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이 어머니의 취업(장희경, 조병은, 1995)과 같은 외적 요인과 관련하여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심리적 친밀감 등을 관계특성으로 하는 조부모-손자녀 관계에서,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은 가족형태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인 현 가족문화안에서도 조부모는 정서적 애정관계를 토대로 손자녀인 아동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토대로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와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 조부모와의 질적인 관계경험을 중심으로 조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조부모-손자녀의 관계특성이 심리적으로 친밀한 정서적 애정관계임을 규명하고

있을 뿐 그러한 관계특성이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력에 관해선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우기 손자녀의 발달을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접근한 소수의 연구도(백문화, 조병은, 1992; 장희경, 조병은, 1995; Baronowski, 1982) 대부분 조부모와의 관계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청소년기 손자녀(Furman & Buhrmester, 1987; Matthew & Spray, 1985)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부모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부모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동기 아동을(Furman & Buhrmester, 1987) 대상으로 손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2인 관계는 쌍방적 관계 뿐 아니라 제 3의 관계와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한다는 체계론적 시각(Belsky, 1981)과 더불어, 손자녀-조부모 관계가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조부모의 관계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연구결과(서동인, 1991; 장희경, 조병은, 1995; Whitbeck et al, 1993)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손자녀-조부모의 상호작용 역시 조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의해 영향받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이 조부모나 부모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도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간 가족원의 복합적 관계노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손자녀와 조부모의 상호작용 통로라 할 수 있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것이 조부모-어머니의 관계와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족관계

사회적 능력이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능력으로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사회, 정서, 인지적 능력을 광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Wright, 1980).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 능력이 사회적 적응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며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화되는

데 요구되는 능력 및 사회적 환경의 기대와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Oppenheimer, 1988).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판단되는 평가적 개념으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정이나 측정 방식은 연구자나 접근법에 따라 다양하다. Greenspan (1981)은 사회적 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결과—지향, 내용—지향, 기술—지향의 접근법으로 구분하였는데(Oppenheimer, 1988)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행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지향 접근법(이숙, 정미자, 1995; Perry & Bussy, 1984)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개인의 능력을 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대인관계, 인기도, 사회적 역할의 성공과 실패, 학교적응등을 사회적 능력의 주요 주제로 연구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위치, 상태)의 측정을 통해 사회적 대인관계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내용—지향 접근법(이병림, 1987; Ziegler & Trikett, 1978)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적 특질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력을 도모하는 인성적 속성을 사회적 능력의 주요 주제로 삼아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질과 기질적 특성을 통해 사회적 능력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지향 접근법(한성희, 1985; Lemare & Rubin, 1987)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사회인지 능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역할 조망과 사회적 추론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감수성, 사회적 이해, 도덕적 판단과 같은 사회적 통찰력, 참조적 의사소통, 사회적 문제해결등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사회적 능력의 중요 부분이라 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능력의 접근법에 따라 개념정의에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 인지, 정서적 능력이다(Oppenheimer, 198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의 상호작용능력이라 개념짓고 대인관계 능력인 사교적 능력, 주도적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인성적 특성인 책임능력(Baumrind, 1973)을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초기 사회적 경험

즉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이경희, 1994; 전경란, 1990; 정영숙, 1992; 최경순, 1993; Cohn, 1990).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롭고 애정적일수록(Cohn, 1990), 형제, 자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수록(최용주, 1993)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온정,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전경란,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능력이 부모나 형제, 자매등 가족원과의 온정적이고 관용적이며 정서적인 애착경험을 통해 발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원과의 정서적 애착, 신뢰감 형성이 이후 타인과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원만한 관계에 기초가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들은 부모, 형제 등 핵가족 중심의 관계경험만을 강조했을 뿐, 확대 가족원으로서 아동의 주요 애착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조부모와의 관계 경험(유안진, 1986; Creasey & Koblewski, 199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조부모 역시 아동의 초기 사회적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 확대 가족원으로 애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특성을 지니므로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요구된다.

### 3. 사회적 지지 개념과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한다(성영혜, 1993; Cohen & Hoberman, 1983). 따라서 대리모로서, 자아 옹호자로서 그리고 사회화 대행자로서 조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 역시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된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애정, 물질적, 정보적 도움, 신체적 안락, 감정이입적 행동, 문제해결의 도움, 가치의 인정등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다. House(1981)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

게 하는 1)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2)물질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3)정보적 지지, 자신감을 심어 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아동의 자기 평가를 돕는 4)평가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Cohen과 Hoberman(1983) 그리고 Berndt(1989)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1)정서적 지지(자기 존중감 지지), 문제사건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2)정보적 지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3)소속감의 지지(동료애적 지지),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도움이나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4)유형적 지지(도구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지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이들이 제시한 사회적 지지 유형을 기초로 조부모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조작적으로 유형화하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존중과 사랑을 통해 손자녀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공감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손자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 승인해주고 필요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 도구나 재원을 제공해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라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최근의 아동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주요한 환경변인임을 지적하고 있다(한미현, 1996). 그러나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보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발달(성영혜, 1993; Salzinger, 1990)이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아동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연구(한미현, 1996; 한종혜, 1995)가 있을 뿐 조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의 관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부모로부터의 애착이나 지지경험이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적응력을 높인다는 선행연구(Shaffer, 1994)를 고려해 볼 때, 아동양육에 있어 주요 원조자이고 자

원인사이며 조용한 구원자, 제 2의 방어선, 안전한 동우리로 손자녀와 강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유안진, 1989; Creasey & Koblewski, 1991; Jendreck, 1993)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역시 부모의 사회적 지지만큼이나 아동의 환경 적응력인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초등학교 5학년은 조부모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부모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시기(Creasey & Kaliher, 1994; Furman & Buhrmester, 1987)일 뿐 아니라 질문지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지닌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남녀아동 2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대부분 핵가족이나 기능적 면에서 확대가족인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 동거 아동과 비동거 아동을 유의 표집하지 않았다.

작성된 자료 242부 중 조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실 기재된 질문지 12부를 제외시키고 230부의 자료를 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은 남자가 123명, 여자가 107명이었으며 조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94명, 조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167명, 외조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101명, 외조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182명이었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230명의 조사대상 아동중 188명은 부모와 생활하는 핵가족이었으며 31명은 한 명이상의 친조부모와 11명은 한 명이상의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이었다. 188명의 핵가족 아동의 경우 조부모와의 내면접촉은 평균 한달에 1, 2회 정도, 전화접촉은 평균적으로 친가는 일년에 3, 4회, 외가는 한달에 1, 2회 정도 이루어짐으로써 조부모와 지속적으로 직, 간접적인 상호 접촉을 하고 있었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아동용 질문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지원(1989)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 도구적 지지 3문항이 있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양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제공된 지지의 양보다 개인이 지각한 지지의 양이 적응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ubow & Tisak, 1989). 이외에 조부모와의 일반적인 관계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서동인, 1991; Cheling & Furstenberg, 1986; Hodgson, 1992)를 참조하여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조부모와 어머니의 관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는 아동학, 가족학 전공자 3인에 의해 검증받았으며 Cronbach's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Park의 IPACI Form A(1981)의 문항을 바탕으로 이병림(1987)이 작성한 문항 및 이경희(1994)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 문항 가운데 사교적 능력 3문항, 주도능력 2문항, 책임수행능력 2문항등 총 7문항을 선정하여 교사용 평가척도로 수정, 사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사용 평가 척도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검증받았으며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한 1개 초등학교에서 5학년의 5개반 아동을 대상으로 1994년 11월 7일~9일 간에 실시되었다. 11월 7일 아동들에게 조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지도한 후 이틀 뒤인 9일 아동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했으며 각 문항에

응답토록 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담임교사는 아동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의 제공자(Loranger, Lacroix & Kaley, 1982)이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에 있어 타당한 평가자로 검증(이경희, 1994; Loranger et al., 1982)되었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것을 부탁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사용 평가 질문지는 11월 7일 담임교사에게 배포한 후 9일 아동용 질문지와 함께 수거하였다.

수거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조사대상의 조부모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한편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어머니 관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알아보았으며 조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의 조부모에 관한 일반적 특성

조부의 평균연령은 70.7세, 조모의 평균연령은 67.4세, 외조부의 평균연령은 69.5세, 외조모의 평균연령은 67.4세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학력은 조부의 경우 76.7%가, 외조부의 경우 84.3%가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조모, 외조모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가 각각 전체의 94.3%, 87.2%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상태를 보면 조부모의 69.6%가 외조부모의 88.4%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나 생활능력은 독립적이었다.

##### 2. 전반적인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조부모-어머니와의 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조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조부모-어머니와의 관계에 관한 기술통계치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조부모에 비해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외조모에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모-어머니 관계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조모에 대한 친밀감은 외조부에 대한 친밀감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외조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보다 높게 평가하며 외조부-어머니의 관계를 조모-어머니의 관계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모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조모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호의적인 외조부에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구문제 1>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조부모 유형에서,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친밀감은 조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강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조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을 설명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손자녀-조부모 관계가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유안진, 1986, 1989; Chelin & Furstenberg, 1986; Kohnhaber & Woodward, 1981)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매개체임을 의미한다.

〈표 1〉 전반적인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조부모-어머니와의 관계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어머니 관계 평균 표준편차
조부 (N=94)	51.34 12.52 범위 (16-70)	7.44 2.05 범위 (2-10)	3.98 1.07 범위 (1-5)
조모 (N=168)	53.24 12.50 범위 (16-70)	7.80 2.03 범위 (2-10)	3.90 1.13 범위 (1-5)
외조부 (N=101)	54.50 12.01 범위 (14-70)	8.12 1.96 범위 (2-10)	4.54 0.77 범위 (1-5)
외조모 (N=182)	55.92 10.86 범위 (14-70)	8.38 1.79 범위 (2-10)	4.60 0.75 범위 (1-5)

〈표 2〉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에 대한 아동의 친밀감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의 친밀감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조부의 사회적 지지 (N=94)	.7263***			
조모의 사회적 지지 (N=167)		.7605***		
외조부의 사회적 지지 (N=101)			.7147***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N=182)				.6961***

\*\*\* p &lt; .001

#### 4.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로의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어머니 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구문제 2〉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어머니 관계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p<.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부모와 어머니의 관계가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백분화, 조병은, 1992; Spray & Matthews, 1985)를 지지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손자녀-조부모관계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의 발달은 다세대간 관계에 의해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Bronfenbrenner, 1986)과 둘째, 어

머니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한 발달도모를 위해 조부모를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친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외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보다 조부모-어머니 관계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문화 특성 상 친조부모와 어머니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신기영, 1991)이므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조부모-손자녀와의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에 비해 친조부모에게 더 통제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친조부모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친조부모의 관계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5.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일

1) 〈표 3〉 및 〈표 4-1〉부터 〈표 4-4〉에서 사용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 X(M)-(0.5



〈표 3〉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조부모-어머니 관계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조부모-어머니와의 관계			
	조부-모	조모-모	외조부-모	외조모-모
조부의 사회적 지지 (N=94)	.5453***			
조모의 사회적 지지 (N=167)		.6432***		
외조부의 사회적 지지 (N=101)			.4657***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N=182)				.4350***

\*\*\* p < .001

〈표 4〉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조부모 유형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능력(평균)	빈 도	F값	Scheffé
친·외조부모 (N=230)	낮은집단	14.54	76	36.24***	a
	중간집단	21.84	77		b
	높은집단	21.83	77		b
조 부 (N=94)	낮은집단	17.96	25	3.11*	a
	중간집단	21.08	39		ab
	높은집단	22.29	40		b
조 모 (N=168)	낮은집단	18.15	41	3.41*	a
	중간집단	20.60	67		ab
	높은집단	21.69	59		b
외조부 (N=101)	낮은집단	16.41	26	5.97**	a
	중간집단	21.30	38		b
	높은집단	20.78	37		ab
외조모 (N=182)	낮은집단	16.41	44	8.42**	a
	중간집단	21.30	66		b
	높은집단	21.24	72		b

\* p < .05 \*\* p < .01 \*\*\* p < .001

원변량 분석결과

〈연구문제 3〉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결과인 〈표 4〉을 보면 친·외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양이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교사에 의해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F=36.24, p<.001). 이를 조부모의 유형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조부(F=3.11, p<.05), 조모(F=3.41, p<.05), 외조부(F=5.97, p<.01), 외조모(F=8.42, p<.01)의 사회적 지지 각각이 아동의 사회

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친·외조부모로부터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인 사회적 능력은 교사에 의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부모의 유형에 따라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았다. 〈표 5-1〉에서 〈표

×S.D)인 경우는 낮은 집단, M-(0.5×S.D)<X<(M+(0.5×S.D)인 경우는 중간집단, X)M+(0.5×S.D)인 경우는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5-1〉 조부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N=94)

사회적 지지 유형	조부의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능력(평균)	빈도	F값	Scheffé
정서적 지지	낮은집단	19.26	27	0.96	
	중간집단	20.83	29		
	높은집단	21.79	38		
평가적 지지	낮은집단	18.88	25	1.22	
	중간집단	20.91	33		
	높은집단	21.75	36		
정보적 지지	낮은집단	18.52	27	*	a
	중간집단	20.66	35	2.62	a
	높은집단	22.78	42		b
도구적 지지	낮은집단	18.68	28	1.74	
	중간집단	21.92	37		
	높은집단	21.31	29		

\* p &lt; .05 \*\* p &lt; .01 \*\*\* p &lt; .001

〈표 5-2〉 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N=168)

사회적 지지 유형	조모의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능력(평균)	빈도	F값	Scheffé
정서적 지지	낮은집단	18.62	45	2.17	
	중간집단	20.70	46		
	높은집단	21.24	76		
평가적 지지	낮은집단	18.22	36	3.34*	a
	중간집단	20.05	58		ab
	높은집단	21.71	73		b
정보적 지지	낮은집단	19.24	54	1.34	
	중간집단	20.53	59		
	높은집단	21.37	54		
도구적 지지	낮은집단	17.47	38	4.69**	a
	중간집단	21.07	59		b
	높은집단	21.39	70		b

\* p &lt; .05 \*\* p &lt; .01 \*\*\* p &lt; .001

5-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조부의 경우 정보적 지지에서(F=2.62, p<.05), 조모의 경우 평가적 지지(F=3.33, p<.05)와 도구적 지지(F=4.69, p<.01)에서, 외조모의 경우 정서적(F=4.55, p<.001), 평가적(F=12.78, p<.001), 정보적(F=6.27, p<.01), 도구적(F=5.86, p<

001) 지지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외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이를 세분해보면 친·외조부보다 친·외조모가 지지의 일부영역에서 특히

〈표 5-3〉 외조부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N=101)

사회적 지지 유형	외조부의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능력(평균)	빈도	F값	Scheffé
정서적 지지	낮은집단	19.40	30	0.95	
	중간집단	20.78	27		
	높은집단	21.68	44		
평가적 지지	낮은집단	19.11	28	1.48	
	중간집단	20.52	29		
	높은집단	21.98	44		
정보적 지지	낮은집단	19.75	29	0.42	
	중간집단	21.23	35		
	높은집단	21.11	37		
도구적 지지	낮은집단	18.64	28	2.19	
	중간집단	20.67	27		
	높은집단	22.11	46		

\* p < .05 \*\* p < .01 \*\*\* p < .001

〈표 5-4〉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N=182)

사회적 지지 유형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능력(평균)	빈도	F값	Scheffé
정서적 지지	낮은집단	17.30	43	4.55*	a
	중간집단	20.77	70		b
	높은집단	21.14	69		b
평가적 지지	낮은집단	16.30	53	12.78***	a
	중간집단	20.49	37		b
	높은집단	22.12	92		b
정보적 지지	낮은집단	17.24	51	6.27**	a
	중간집단	20.83	69		b
	높은집단	21.63	62		b
도구적 지지	낮은집단	17.34	47	5.86**	a
	중간집단	19.98	47		ab
	높은집단	21.63	88		b

\* p < .05 \*\* p < .01 \*\*\* p < .001

외조모는 사회적 지지의 전 영역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성 조부모가 여성 조부모에 비해 손자녀에게 좀 더 공식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정 거리 밖에서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때문에(Kivett, 1985),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적 지지영역에서 여성 조부모만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남성적 특성이 강한 도구적 영역에서 친·외조부 등이 의미있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노인의

가정내 주도권 강화로, 가용할 도구적 자원이 여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한편 외조모는 자녀 양육과 같은 표현적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원인사(신기영, 1991)이기 때문에, 다른 조부모에 비해 아동의 양육활동에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적 지지의 전영역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조부모보다 많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표 5-4>에서처럼 외조모만이 사회적 지지의 전 영역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 V. 결론 및 제언

아동의 성장,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유의미하게 영향받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초등학교 5학년 남녀아동 230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은 조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조부모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가지므로 손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사랑을 통한 정서적 공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 및 도구나 재원의 제공 그리고 손자녀를 인정하고 승인하는 태도를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조부모 관계가 긍정적이고 친밀할수록 아동은 조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의 주 수행자인 어머니가 손자녀-조부모 관계의 매개자로 역할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백문화, 조병은, 1992; Hodgson, 1992)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손자녀-조부모 관계도 조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위해 어머니는 자신 스스로가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임을 인식하고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소홀하기 쉬운 핵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

인 아동과 조부모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교사에 의해 높게 평가됨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아동은 조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조부모는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존중과 사랑, 인정과 승인,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 충고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손자녀에 대한 지지적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특히 외조모가 사회적 지지의 전 영역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친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 역시 아동과의 상호작용 범위를 확대하고, 폭 넓은 범위에서 요구되는 아동의 욕구에 지지적인 반응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중 내인관계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부모, 형제와의 관계 외에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도 강화되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첫째,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받은 아동과 조부모가 안게서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받지 않은 아동간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하지 않았으며 둘째, 학동기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조부모의 영향력을 발달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조부모-어머니 관계만을 다루었을 뿐 그외 아동의 출생순위나 사회경제적 배경,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같은 관련변인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 조부모가 제 2의 양육자로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충분히 역할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했으며 둘째, 아동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조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아동양육부담을 조부모와 분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했으며 셋째, 아동의 발달에 있어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증명함으로써 손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지침이 부족한 조부모에게 손자녀

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태도)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박의순, 조병은(1990). 청소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각 조부모와의 유 대감. 가족학 논집, 2, 28-62
- 2) 박지원(1989).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백문화,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동거와 비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4)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8) (1989). 육아론. 서울 : 문음사.
- 9) (1995). 인간발달 신강. 서울 : 문음사.
- 10) 이경희(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2) 이숙,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103-112.
- 13) 장희경, 조병은(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6(1), 211-224.
- 14) 전경란(1990).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5) 정영숙(1992).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6)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4(2), 115-135
- 17) 최용주(1993).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 수용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 한종혜(1995).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2), 129-141.
- 21) Baranowski, M. D. (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 :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575-584.
- 22) Barranti, C. C. R.(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 Family resource i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343-352.
- 23)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Pick, A. D.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 24) Belle, D. (1988).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Ed.), N. Y. : John willy & sons.
- 25)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s. Development Psychology, 17, 3-23.
- 26) Berndt, T. J.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N. Y. : John Wiley & Sons.

- 27)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family as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28) Cherlin, A. J., & Furstenberg, F. F. Jr.(1986). *The new American Grandparent*. N. Y. : Academic Press.
- 29)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30)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3), 393-403.
- 31) Creasey, G. L. & Kaliher, G. (1994). Age differences in grandchildren's perceptions of relations with grandparents. *J. of Adolescence*, 17, 411-426.
- 32) Creasey, G. L. & Koblewski, P. (1991). Adolescent grand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and paternal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Journal of Adolescence*, 14, 373-387.
- 33)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Child Development*, 69, 1412-1423.
- 34)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35) Hodgson, L. G. (1992). Adult grandchildren and their grandparents : The enduring bon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4, 209-225.
- 36)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 Addison-Wesley.
- 37) Jendrec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38) Kivett, V. R. (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565-571.
- 39) Kornhaber, A. & Woodward, K. L (1981).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 Y. : Anchor Press/Doubleday.
- 40) Lemare, L. J. & Rubin, K. H. (1987). Perceptive taking and peer interac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8, 306-315.
- 41) Loranger, M., O. Lacroix, & R. Kaley, (1982). Validity of teachers' evaluation of students'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 51, 910-920.
- 42) Matthews, S. H. & Sprey, J. (1985).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0, 621-626.
- 43) Oppenheimer, L. (1988). The nature of social action : Social competence versus social conformism. In Barry H. S., Grazia Attili, J. Nadel, & R. P.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44) Perry, D. & Bussy, K. (1984). *Social development*. N. J. : Prentice-Hall.
- 45) Salzinger, S. (1990). Social networks in child rearing and child developme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ic of Science*, 602, 171-188.
- 46) Shaffer, D. R.(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3RD.)*. 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47) Tinsley, B. R. & Park, R. D. (1984). Grandparents as support and socialization agents. In M. Lewis (Ed.), *Beyond the dyad*, N. Y. : Plenum
- 48) Whitbeck, L., Hoyt, D., & Huck, S. M. (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025-1035.

- 
- 49) Wright, M. J. (1980). Measuring the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 Science*, 12, 17-32.
- 50) Zigler, E. & Trickett, P. K. (1978).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 789-798.